이순신장군의 사랑보다

넓고 깊은 사랑이 또 있을까

백 재 은

'이번엔 또 어떤 책을 선물로 받게 될까?'

부모님께서는 책을 선물해 주시고 항상 한 시리즈를 다 읽으면 또 다른

전 집 을 사 주 신 다 . 그 래 서 책 과 함 께

설 레 임 도 같 이 선 물 해 주 신 다 . 지 난 해

' 난 중 일 기 ' 는 그 렇 게 처 음 내 게 다 가

왔 다 . 위 인 전 집 을 다 읽 어 서 초 등 논 술 필

독 서 시 리 즈 를 사 주 셨 기 때 문 이 다 .

책 겉 표 지 의 이 순 신 장 군 은 거 북 선 앞

에 서 칼 을 단 단 히 잡 고 , 누 구 라 도 무 서

워 할 표 정 을 지 으 시 며 엄 하 게 서 계

셨 다 . 지 난 해 처 음 읽 었 을 때 는 어 려 운

단 어 들 이 많 아 서 그 런 지 조 금 이 해 하 기

힘 들 었 었 다 . 하 지 만 다 시 괄 호 안 에 뜻
까 지 천 천 히 상 상 하 며 읽 으 니 까 400 년
전 의 일 기 가 신 기 하 게 도 어 렵 지 않 았 다 .
난 중 일 기 는 일 본 이 쳐 들 어 온 임 진 왜 란
때 7 년 동 안 이 순 신 장 군 께 서 쓰 신 일
기 이 다 . 1592 년 에 가 장 기 억 에 남 는
일 기 는 첫 번 째 장 에 ' 어 머 니 에 대 한
간 절 한 그 리 움 이 가 슴 에 가 득 하 다 ' 라 는
글 이 다 . 책 겉 표 지 의 엄 한 모 습 과 는 달
리 어 머 니 를 사 랑 하 는 이 순 신 장 군 의 따

뜻 한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의 집 개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무기
손질을 안할 때는 누구든 엄하게 곤장
을 치고 벌을 내리셔서 깜짝 놀랐다.
하지만 부지런히 일하며 무기손질을 한
사람에게는 상을 내려주셨다. 참 공평하
시고 멋진 장군이시다. 내가 만약 이순
신 장군이었다면 몰래몰래 좋아하는 사
람에게만 상을 내리지 않았을까?
15 93년에 가장 눈에 띄는 일기는 바

로 이 순신 장군의 시였다.

가을 기운이 바다에 드니,

나그네 생각은 어지럽도다.

홀로 배의 뜸 밑에 앉았으니,

마음이 몹시 울적하구나.

달빛이 뱃전에 드니,

정신은 맑아지는도다.

잠도 이루지 못했거늘,

닭이 벌써 우는구나.

' 자기 한 몸 살찌울 생각만 하고

나랏일은 돌보지 않다니! 앞날이 걱정

이다'라는 이순신장군 일기의 한 장면

이 갑자기 떠올랐다. 조선시대로 여행할

수 있다면 홀로 계신 이순신장군 옆에

다가가 외롭지 않게 달빛을 바라보고

싶었다. 이순신장군의 시는 '생각에 잠

기게 하는 시' 같다.

새 학기가 되어 학교에서 자유주제로

시화숙제를 내주셨다. 봄 하면 꽃이 떠

올라서 고민하다가 달맞이꽃으로 시를 지었다. 그런데 이순신장군의 시가 함께 떠오르는 것이다. 나도 모르게 절로 시를 짓게 되었다.

달맞이를 하는 달맞이꽃

밝은 낮이 지나가면

달빛 어스름한 밤이 찾아온다.

일 년 중 가장 큰 달

만복을 가져다준다는 믿음

그래서 저녁이 되면,

달에게 소원을 빈다.

달맞이꽃도

지는 꽃들에게 인사하며

노란색빛을 띠워 땅을 빛낸다.

전쟁 중에 외로운 밤을 홀로 지새며

나라걱정을 하신 이순신장군처럼

소원을 비나 보다

달맞이를 하는 달맞이꽃이 노랗다

내마음도 노랗다

달빛처럼

학교복도에 걸린 시를 볼 때마다 이

순신장군의 '난중일기'가 떠오른다. 이

순신장군이 지금 살아계셔서 함께 시를

지어보고 낭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혼자 행복한 상상을 해본다.

1594년 일기를 읽다가 '굶주린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는 비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니'라는 글을 보고 정말 사실일까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책을 더 찾아보고 임진왜란이 얼마나 참혹한 전쟁인지 알 수 있었다.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고, 어린 아기는 죽은 엄마에게 기어가 젖을 빨고, 우리나라를 도

와주기 위해 온 명나라 군사가 토한
음식까지 핥아먹었다고 하니 정말 생각
하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 끔찍했다.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닭이 울 때까지 잠 못 이룬
이순신장군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다!
일기 곳곳에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이 가득했다. 그런데 1597년 원균의 모
함을 받아서 체포되었다가 옥문을 나와
서 어머니의 죽음소식을 들었을 때는

너무 속상했다. '뛰쳐나가 가슴을 치고 뛰며 슬퍼하니 하늘의 해조차 캄캄하더라'라는 일기를 보자 '얼마나 슬펐으면 해가 캄캄했을까!' 이순신장군이 불쌍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죽음과 아들의 죽음에도 슬픔을 참고 나라를 위해 싸우신 이순신장군은 정말 사람이 아니라 신 같았다. 나라를 위한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었으면 . . . .

우리나라에 이런 장군이 계셨다니 정

말 자랑스럽고 또 자랑스럽다!

또한, 마지막까지 나라걱정을 하시며

남긴 이 아름다운 말 한마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숨겨서 병사

들을 놀라게 하지 마라...."

내가 얼마나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웃

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책이었다. 나라가

없다면 소중한 이웃도 사랑하는 가족도

위험하겠지! 나도 이순신장군께 받은

큰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다.